

# 김 지사, 지역 현안·국고 확보 위해 국회 ‘집중공략’

### 여야 정책위의장·상임위원장 등 면담 전남특별자치도·기회발전특구 지정 조세특례·SOC국비 3천억 증액 건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잇따라 면담하고 전남특별자치도와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등 지역 현안 해결 및 2025년 국비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추가 증액 등을 건의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정태호 기획재정부위원회 간사, 박지원·서미화 국회의원 등을 찾아 지역 현안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남이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 핵심 성장축으로 당당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도민의 오랜 염원인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정부 1도 1국립대 정



김영록 전남도지사(오른쪽)와 박완수 경남지사(왼쪽)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등 입법 현안 및 국비를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책 방향과 지역 상생·화합에 부합하면서 전체 도민의 건강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통합의대’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통합의대를 정부에 추천하면, 정부에서 2026학년도 국립의대 신설 절차를 신속

히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는 “지방은 권한과 재정이 부족해 주도적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의 권한을 확보해 지역 주도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했다.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과 관련하여도 기업 유치 및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상속 공제 및 특구 근로자 소득세 감면 확대 등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SOC·관광·해양 등 남해안 발전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중앙지방통합형 행정기관인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선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진상규명 조사기한 2년 연장과 함께 신속한 희생자유족 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지역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인 SOC 분야 국비 추가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SOC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사업비 배분이 필요하나 올해 예산과 2025년 정부안 국비는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역 핵심사업을 계획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1조원 확보가 필요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억 원 이상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SOC 증액 관련 주요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1300억 원 △국도 77호선 신안-해남 화원 연결도로 사업비 539억 원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사업비 407억 원 등 17개 사업이다.

한편 국회 예산심의 총력 대응체제에 나선 전남도는 도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실·국장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 최종 의결 때까지 정부안 미반영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최대한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 광주시, 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대책 점검

### 내년 3월15일까지 제설작업반 운영 관내 13개 노선 총 96km 집중 관리

광주시통합건설본부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확보를 위해 사전준비 점검에 나섰다.

13일 광주시통합건설본부는 15일부터 2025년 3월15일까지 ‘도로 제설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3개반 32명의 제설작업반을 편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 상황에 따라 제설 투입계획을 세워 종합건설본부 지정노선 무전대로, 빗고올대로, 하남진곡산단로 등 13개 노선 총 96km 구간에 대해 제설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제설 사전준비를 위해 살포기·염수

분사장치·덤프트럭·굴삭기 등 제설 장비 7종 42대에 대한 점검과 노후장비를 교체했다. 여기에 이상기온에 의한 폭설에 대비해 제설용 소금과 친환경 제설제 1640톤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특별교부세 32억원을 투입해 분덕나들목(IC), 상무교차로 등 5개소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했다.

자동염수분사장치는 도로에 염수를 미리 분사해 얼음이 형성되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다.

광주시는 기상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단계별 비상근무조를 운영해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강설이 예고되면 신속히 제설 작업을 수행한다.

노병하 기자

## 전남도, 여수석유화학산단에 5조6000억 투자

### 여수상위서 ‘위기대응 전략 토론회’ 생산량 증가에 공급과잉·업황 부진 석유화학산업 친환경·고부가 재편 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전남도는 세계적인 석유화학산업 경기 침체와 공급과잉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13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 주종섭 의원, 문갑태 여수시의회 부의장,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오영철 여수산단 공작장협의회장, 정광하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 여수산단 입주기업 관계자와 전남도 위기대응 TF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추진상황 점검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중국·중동 등 생산량 증가로 인

한 공급과잉으로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플라스틱 규제, 탄소중립 등 고부가·친환경 산업으로 흐름이 강화되면서 석유화학산업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은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어려움이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데다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가 지역 경기침체, 세수감소 등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실제 여수국가산단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국내 생산능력의 48.9%에 달하는 626만5000톤으로, 국내 1위다.

이에 정부는 ‘석유화학 민관합동 비상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석유화학산업의 단기적 극복 방안과 장기적 추진 방향을 계획 중에 있으며, 연내에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남도 또한 ‘여수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 글로벌 석유화학산업의 재편과 위기대응을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친환경·고부가 산업으로 재편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조성 △산업 인프라 확충 △규제개선 등 4개 분야 39개 사업 5조 6480억원 투입 계획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 여수 국가산단 중심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 촉구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발표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과 지역민이 지혜를 모아 여수 석유화학산업이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문선 여수상의회장은 “여수국가산단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로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인하, 산업위기 지역 지정 등 신속하게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LG화학 상무 또한 “전력·공업용수 등 인프라 확충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환 전남도 부지사는 “이번 토론회는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기업, 기관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등 뜻깊은 자리였다”며 “여수 석유화학산업은 도의 핵심 산업인 만큼,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지자체와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 전남도,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사업 본격 추진

### 사회단체 연계 ‘청년들 잘 지내니?’ 안부 묻기·반찬나눔·가정방문 진행

전남도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전국 최초로 멘토·멘티사업으로 도입한 ‘청년들 잘 지내니?’의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청년들 잘 지내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전남여성단체협의회,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준비청년 27명의 사회적·정서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멘토·멘티 연계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들은 협약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이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자립준비청년과 전남여성단체 회원 간 1대1 매칭으로 상시 안부 묻기, 반찬나눔, 가정방문 등을 한다.

실제 협약 이후 지난 10월 정혜숙 영광 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장은 영광에

거주하는 한 20대 자립준비청년과 첫 만남을 갖고, 이후 2차례 자립준비청년 집을 방문해 쌀과 밀반찬을 전달하는 등 든든한 지역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해당 청년은 “안부도 묻고, 반찬도 직접 만들어줘 엄마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는 동부권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동부권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15명의 반찬 지원을 위한 반찬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최두례 전남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문성운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 관장 등 7명의 전남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이 참여해 반찬을 직접 만들었다.

최두례 회장은 “회원 모두가 일심동체로 자립준비청년이 모두 내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든 반찬은 2명의 청년에게 직접 전달하고, 13명에게는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 전남도, 미국 KITS영화제서 전남 음식·관광 알렸다

### LA 파라마운트서 한과·약과 선배 순천만정원·목포 역사유적지 홍보

전남도 미주사무소는 지난 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파라마운트에서 열린 ‘2024 KITS 영화제’ 시상식 메인 후원사로 참여해 전남 음식과 관광의 매력을 알렸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KITS(Kids In The Spotlight)는 위탁가정과 소외된 지역 청소년이 자신만의 단편영화를 제작, 감독, 출연하도록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다. 매년 열리는 KITS 영화제 시상식은 연예인, 영화업계 전문가, 후원자들이 모여 젊은 영화 창작인의 재능을 조명하고 시상한다.

이날 영화제에서 전남도 미주사무소는 미국 영화산업의 중심지에서 주류 사회에 영향력이 큰 방송인과 영화배우, 제작자, 영화제 참가자 등 500여 명에게 한국의 전통 스낵인 한과와 약과를 선보였다. 전남 대표 관광지인 순천만국가정원, 여수 해상케이블카, 목포 역사유적지 등도 홍보했다.

영화제에 참가한 영화배우 저스틴 코넬

(Justin Cornwell)은 동료들과 전통 한과를 맛보고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쿠키를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싶다”고 시식평을 남겼다.

신현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소외받은 청소년이 감독이 되고, 주연으로 출연해 미국 지역사회를 더 밝게 만드는 KITS 영화제에 한국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후원하고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한국의 부양’에서 나오는 한과 유자주스를 많은 현지인이 맛보고 즐기도록 홍보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